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10. 5.(목) 11:00 < 10. 6.(금) 조간 > 배포 2023. 10. 5.(목)

소통(릴레이) 간담회 개최로 에너지업계와 소통 강화

- 석유업계에 이어 주요 에너지산업 협·단체와 간담회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 강경성 2차관은 10. 5일(목) 에너지 분야 주요 협회·단체와 함께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에너지업계 전반을 대표하는 주요 협회*를 대상으로 업계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급변하는 세계(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화에 대한 민관 차원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대한석유협회, 도시가스협회, 원자력산업협회, 민간발전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해외자원개발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집단에너지산업협회,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 등 9개

최근 세계(글로벌) 에너지 정세는 미-중 패권경쟁, 러-우 전쟁이 촉발한 자원 무기화, 에너지확보 경쟁 등으로 인해 에너지 안보가 중요한 쟁점(이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파리협정 목표 실현을 위한 탄소 중립이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정책의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시장의 흐름은 우리 에너지업계와 시장에는 위기와 동시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에너지업계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관 차원의 대응전략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편,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 증대, 탄소 중립 확산 등 에너지산업과 시장의 대변혁기를 맞아 에너지업계의 입장과 이해를 종합·조정하고 업계를 대표하는 구심체로서 (가칭) “에너지산업연합회”의 설립 필요성도 제기되었으며, 앞으로 의견수렴 등 논의 구체화를 위해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강 차관은 간담회에서 “에너지산업은 국민 생활 및 연관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만큼 정부와 업계 간 소통이 중요하며, 불확실한 대외 여건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차관은 지난 5월 취임 이후 8월에 ‘석유업계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가스, 핵심광물, 에너지 신산업 등 주요 에너지업계와 정례적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통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에너지정책관 에너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경수 (044-203-5120)
		담당자	사무관	김태훈 (044-203-512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 고 **에너지산업 주요 협·단체 소통 간담회 개요**

□ (주요의제) 에너지안보, 탄소중립 등 에너지정책의 중요 아젠다와 관련한 **에너지산업계 현장의견 수렴 및 민-관 소통의 장 마련**

□ (일시 /장소) '23. 10. 5.(목) 14:15~15:15 /무역보험공사 6층 중회의실

< 세부 진행일정 >

시 간	주요내용	비 고
14:15 ~ 14:20('05)	참석자 소개 및 사진촬영	
14:20 ~ 14:25('05)	**모두 발언**	**2차관**
14:25 ~ 15:10('45)	자유토론	참석자 전원
15:10 ~ 15:15('05)	**마무리 발언**	**2차관**

□ (참석대상) 산업부 2차관, 에너지산업 협·단체 부회장

< 참석 협·단체 현황 >

연번	기관명	참석자	비고
1	대한석유협회	조준상 실장	석유
2	도시가스협회	김선기 부회장	가스
3	원자력산업협회	노백식 부회장	원자력
4	민간발전협회	이운호 부회장	전력
5	한국전기공사협회	김병기 상무이사	
6	해외자원개발협회	양원창 부회장	자원개발
7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임완빈 부회장	신재생에너지
8	한국집단에너지산업협회	전제구 부회장	집단에너지
9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	김상곤 부회장	에너지효율